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경: 누가복음 23장 39-49절

Tag: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눅23:39-49)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장교 백부장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단 4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백부장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던 하인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바로 그 백부장은 아니다.(그는 가버나움을 지키고 있었다. 혹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차출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며,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거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나, 다윗왕을 통한 메시아 소망이나, 세례요한을 통한 메시아 증언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을 것이고, 알더라도 단편적이든지, 어렵게 알아듣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평행본문 마 27:54, 막 15:39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27:54)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막15:39)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멀리서 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놀라는 소리)

이런 고백을 볼 때 이 장교는 단순히 사형집행관으로서의 임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재판하기에는 무리한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 어처구니없는 과정 속에서 사형에 처해진 일, 거짓 증인들을 고용한 바리새인, 정치적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의 음모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비록 사형집행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분은 결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예수님의 언행이 백부장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분명히 억울한 죽음인데 억울해 하지 않으신 모습,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떤 알 수 없는 목적인 것 같은 느낌, 함께 매달린 죄수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 비아냥거리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꾸도 않으시는 모습,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자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자신에 찬 소망의 말씀 등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이 솟아났을 것이다. 하늘과 땅에 감감해지며 3시간 동안 지속된 일,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천지가 놀라는 일 등을 보면서 비로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억울한 사람이 아닌, 정녕 의인이기에 그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하겠다고 결단했을 것이다.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있는 세대이고,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을 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반역자로 몰아 결국 사형을 당하게 하는 시대에 자기만이라도 이분은 죄가 없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성경을 알거나 신학을 알거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천재지변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친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4차원의 영성이고, 제목은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이다.

우선 성령의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다.

일단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4차원에 속한 존재들이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굳이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세계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계를 3차원으로만 인식하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은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다. (모두 반 기독교 세력들이다.)

세계를 오롯이 물질로만 인식하려는 목적으로 3차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3차원적 이해만으로는 이 세계가 제대로 인식되거나 설명되지 못한다. 적어도 3차원을 초월하는 영성으로 비로소 세계가 제대로 인식되고 설명되는데 무리가 없는데, 그것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위해서 3차원이라는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4차원을 반박하면서 얻게 되는 기생이론에 불과하다.

진화론은 창조론에 대항하는 이론일 뿐이고, (요즘은 진화론을 유전공학을 위한 원시적 이론쯤으로 인정하고 있다.-진화론도 진화해서

유전공학이 됨)

공산주의는 전통적인 체제(특히 기독교국가)를 뒤집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이론일 뿐이고,

무신론은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에 불과하다. (타종교 지역에서의 무신론 논쟁은 없다.-그런 알려진 학자가 없다는 것.)

그러면 4차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다. 무당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신과 마귀나 천사까지 인정하는 자들이다. 문제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까지도 4차원보다는 3차원만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고,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도 성령운동을 무조건 반대하고 은사를 마귀의 것이라고 매도하는 몰상식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도 허다하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님)

오늘은 분명히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해보려고 한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요즘은 속이려는 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속아서 기초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기초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기초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뜻)

1. 삼위일체 신앙고백이 분명한 사람(정체성)

- 일단 기독교인이어야 함. 타종교에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
- 회개가 가능하고 신앙의 결단이 분명한 사람
-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경건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로, 예배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
- 특히 성경에 나타난 초3차원적인 사건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2. 기초적인 정의감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사회성); 십계명
-리더십에 속한 성령의 사람;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 책임지는 사람

-악인의 리더십;아랫 사람에게 악한 일을 시키거나 묵인하는 사람

3. 약자에 대한 돌봄이 분명한 사람(경제적 감성);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침(포폴리즘은 노)

-의식주만 해결해 주고 큰돈은 주지 말 것

옵션

1.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대부분의 리더가 갖추고 있음)

2. 성격이 온순한 사람:(스데반, 세례요한, 엘리야 등은 과격한 사람
-과격함 댓가를 치루게 된다.)

3. 되도록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예법을 지키는 사람(바울은 독신이었고, 삼손은 방탕한 자였고, 그는 처참한 최후로 사명을 감당한다.)

4. 전략적 구분도 중요하다.

-적은 속임수를 중요한 전술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기초적인 것과 옵션을 살피며 구분하라)

-피아구분으로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을 가려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런 경우)

-의인을 의인이라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는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정권을 잡고 자신들만의 세계관으로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자들이다. 공산주의는 악의 축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는 태극기가 장식되어 있었고,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 그들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의 행태를 정확하게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자들이다.

-아직은 이 구분이 모호하기에 전쟁에서 전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잘 구분하고 올바른 기도와 언행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